



[시장동향] 英, 물가상승률 역대 최고치 경신

- 지난 7월 우유, 치즈 등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12.7% 상승



지난 7월 영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982년 이후 4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ON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1% 상승한 가운데,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이 전년대비 12.7% 오르면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유, 치즈, 계란, 빵 및 시리얼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체다 치즈와 요거트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지면서 물가 상승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월과 6월 평균 소득은 3%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edition.cnn.com, 8월 17일 >

[우유급식] 美 앨라바마주, 우유급식 공급처 확보 난항

- 주요 공급처 공장 가동 중단, 식품 가격 상승, 인력 부족 등이 주요인



미국의 대형 유가공 업체인 보든 데어리(Borden Dairy)가 남부지역 공장 가동을 중단할 계획임을 밝히자 개학을 앞둔 학교들의 우유급식 공급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 파산보호를 신청한데 이어 최근에는 오는 9월 30일 앨라바마와 미시시피주에 위치한 유가공장 두 곳을 폐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 전까지 우유를 지속 공급할 계획임을 약속했으나 당장 공급을 이어나갈 업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앨라바마주 전역 100여개 학교의 42만 여명 학생들에게 공급 되오던 우유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농단체와 교육부는 새로운 공급업체 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나 식품 가격 상승,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인력 부족, 공급망 차질 등으로 우유급식은 물론 지역내 아동 영양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dairyherd.com, 8월 17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